마음이 만물이고, 만물이 마음이라

당신의 깨달은 심경을 선시(禪詩)로 지어 백봉 거사의 인가를 받았다며, 직접 백지 위에 써주었다.

無面目者是本然(무면목자시본연)
頭頭物物從此來(두두물물종차래)
秋月春花君知否(추월춘화군지비)
石女吹笛木人舞(석녀취적목인무)

'얼굴 없는 자, 이것이 본래 이러하다. 두두물물이 이리로 좇아 왔다. 가을달 봄꽃을 그대는 아는가. 돌여인은 젓대를 부는데 나무사람은 춤을 춘다.'

구십 평생의 살림살이가 이 노래에 담겨 있으니,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게송에서 돌여인이 피리를 불고 목인이 춤을 추는 것은 우리 '본래의 얼굴(本來面目)'인 법신(法身)의 무심(無心)한 묘용을 뜻하는 것입니까?"

묵산 스님은 깨침은 자득(自得)하는 것이기에 구구한 설명은 쓸 모 없다는듯 간단한 사족(蛇足)으로 답을 대신했다.

물질에 쏠리지 말고 인생문제 풀어라

기복으로는 근본문제 해결 못 해

"만물이 마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만물이고 만물이 마음이니, 둘이 아닙니다."

필담(筆談)을 섞어 가며 나눈 대화임에도 1시간 30분 여의 문답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척하면 삼척'이라고 10여 개의 질문지를 읽고 즉답한 대담은 연로하신 스님의 건강을 고려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했다.

"큰스님, 끝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불자들과 스님들에게 바른 마음공부의 자세를 일러주십시오."

"물질에만 쏠리지 말고 자기 본래면목을 걷어잡고 열심히 인생문제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복불교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절 마당으로 나오니, 날개를 다친 한 비둘기가 햇볕이 내리쬐는 눈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도량 안의 비둘기들은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절 밖에 나가면 다시 사람들을 경계할 것이다.

갈등이 그칠 날이 없는 세간 속에서도 참다운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는 날이 과연 올 것인가. 그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렸으리라. 사람들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져 모두 하나가 될 때 지구별 위에서도 불국토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란 희망을 놓고 싶지 않다.

글 · 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에 막혀 답답하더라/ 어두운 밤 정진하는데 달이 동쪽으로 떠오르니/ 홀연, 허공의 뼈를 쳐부수도다.' 이런 뜻이다. 묵산 스님은 산짐승들도 인곡 스님을 겁내지 않은 정도로 대도인이었다며 거듭 스승을 찬탄했다.

그러나 묵산 스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지식은 바로 백봉 거사였다.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탁발하고 염불정근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다가, 1975년 서울 정릉4동 북한산 자락에 보림사를 창건하고 선방을 만든 것은 백봉 거사를 모시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백봉 거사를 대도인이라 느껴서 친견한 뒤 '허공이 하나이니, 지도리(樞: 사물의 근본)도 하나이며 생명도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我)와 법(法)이 모두 공하다[俱空]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복으로 흘렀을지도 모르니, 그 은혜가 참으로 지중합니다. 백봉 거사님의 선시집과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책을 발간해서 대중에게 보시한 일이 큰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비록 거사의 신분임에도 진리를 배움에 있어서는 승속(僧俗)이 따로 없었던 묵산 스님은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금강경〉에 대한 당신의 안목을 〈금강경 노래〉로 지어 백봉 거사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14

진언종의 중흥조 카쿠반(覺鑁) ①

진언종의 중흥조 카쿠반(1095~1143)이 300여 년 전 종조 쿠카이(空海)의 가르침을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기존의 세력에 밀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정진하기 위해 쓴 '밀엄원발로참회문(密嚴院發露懺悔文)'을 썼다. 이 참회문은 현재에도 진언종 각 종파에서는 자계(自戒)의 경문으로 널리 독송되고 있다. 사건은 진언종의 성지인 고야산에 대전법원(大傳法院)을 지어 교학의 연찬과 밀교수행의 도량을 확립하고자 한 것에서 발단됐다.

36살의 카쿠반은 쿠카이의 중생구제의 열망이 깃든 고야산의 사원이 승려들의 생활수단으로 전락, 신심이 엷어지고, 권력에 눈이 어두운 승려들에 의해 타락해가는 모습을 한탄했다. 이러한 현실을 수행 중심의 도량으로 바꾸고자 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본산인 금강봉사(金剛峰寺)는 물론 동사(東寺), 제호사(醍醐寺)의 승당 세력은 그를 박해하고 추방하였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마침내 근래사(根來寺)를 건립, 이곳에 대전법원과 그 안에 지어진 밀엄원을 옮겨 제자양성에 몰두했다. 사후에는 그가 종래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한 교의를 기반으로 제자들에 의해 신의진언종(新義眞言宗)으로 발전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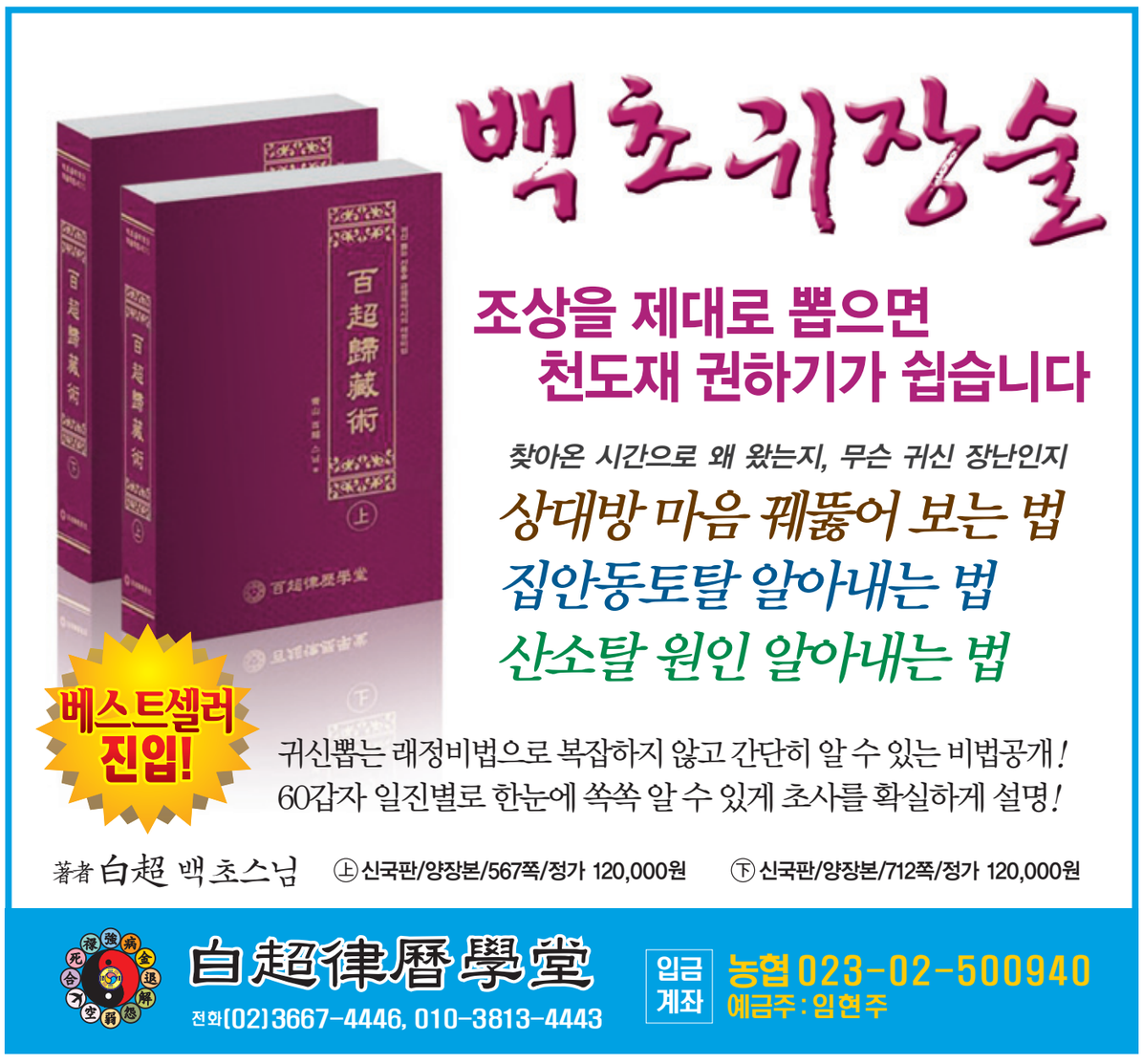
금강봉사 서탑 내부

스승 쿠카이의 유업 계승을 생애 목표로 삼은 카쿠반
정토사상을 진언종에 수용시켜 신의진전종 창종

현재의 신의진언종은 좁게는 각 산회에 속하는 진언종 18본산의 하나이지만 넓게는 고의(古義)진언종과 그 세력을 나누고 있다. 고의진언종이 최고불인 대일여래가 스스로 설법한다는 본지신(本地身) 설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의진언종은 현실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하나하나가 가지신(加持身)을 나툰 대일여래의 설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교의상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승속 어디서나 당대의 개혁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카쿠반은 13세에 교토의 인화사(仁和寺)에서 들어가 16세에 정식 승려가 되었다. 이후 동대사에서 수학하고 20세에 고야산에 입산하여 쿠카이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았다. 27세에 스승 칸죠(寬助)로부터 전법관정을 받고 이후 쿠카이 이래의 동량으로 불려졌다. 우주의 구성요소인 지 · 수 · 화 · 풍 · 공륜의 5가지 상징으로 구성된 오륜탑이 일본에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된 〈오륜구자명비밀석(五輪九字明秘密釈)〉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카쿠반은 당시 유행하던 정토사상을 진언종의 입장에서 포용했다는 점에서 시대상의 흐름에도 무관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밀엄정토를 대일여래가 주재하는 보편적인 정토로 보고 아미타여래의 서방정토를 그 일부분으로 보았다. 그러나 밀엄정토가 중앙에 있고, 서방정토가 서쪽에 있다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밀엄정토가 서방정토를 포섭하고는 있지만 또한 서방정토 이외에 밀엄정토가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즉신성불을 주장하는 교의에 따른 해석인 것이다. 깨달음을 극락왕생 이후로 유보한 정토사상을 현실 속 상적광토(常寂光土)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그는 인계(印契)의 신밀(身密), 진언의 구밀(口密), 만다라의 의밀(意密)의 3밀 가운데 신밀과 구밀의 2밀 수행은 물론 3밀 가운데 어느 한 밀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도 즉신성불이 가능하다는 이행(易行)을 순차적으로 논함으로써 종조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이해했다. 말하자면 근기의 우열에 의한 3→2→1밀성불을 펼침으로써 이행도인 염불행에 의한 극락왕생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정토사상이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도피라고 하는 관념과 당당히 마주서서 중생의 세계를 장으로 하는 즉신성불의 밀교적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후의 정토보다도 현실이 곧 정토임을 외침으로써 사바세계 내에 안심을 부여한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